



통번역학연구  
제24권 4호

ISSN : 1975-6321(Print) 2713-8372(Online)

## 언택트 시대, 원격통역이 주는 도전과 기회 -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순미

**To cite this article :** 김순미 (2020) 언택트 시대, 원격통역이 주는 도전과 기회 -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4, 1-33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 언택트 시대, 원격통역이 주는 도전과 기회

-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김 순 미\*

##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원격통역 개념과 중요 기준 정리
  - 2.2. 원격통역의 역사와 종류
  - 2.3. 원격통역의 문제
3. 설문 내용과 결과
  - 3.1. 설문조사 작성
  - 3.2. 통역사의 위치, 통역 길이, 효율
  - 3.3. 원격통역의 제약
    - 3.3.1 기술적 문제
    - 3.3.2 의사소통의 문제
    - 3.3.3 물리적 환경의 문제
  - 3.4. 사전 준비사항과 응급시 대처방법
  - 3.5. 원격통역의 발전 가능성
    - 3.5.1 원격통역에 대한 통역사들의 의견
    - 3.5.1 KATI 협회에 바라는 사항
4. 결론

## <Abstract>

Kim, Soon Mi. (2020).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Distance Interpreting in the

\* 숙명여자대학교

<http://dx.doi.org/10.22844/its.2020.24.4.1>

Post-COVID Era.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24(4), 1-33

With a dramatic decrease in the number of face-to-face interactions, the COVID-19 pandemic has immensely affected the interpreting community; however, distance interpreting executed on various online platforms has emerged as a way to circumvent the difficulties in providing language services between parties around the world. Distance interpreting (DI), delivering interpreting services from a distant site, with the interpreters receiving both audio and visual input displayed on screens, presents some cognitive, emotional, technical, and physical difficulties to interpreters due to many reasons including a lack of social “presence” in remote interactions, the lack of visual perception of the conference hall, bad sound and image quality, and difficulties in handling technical devices.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the limitations of DI and ways to overcome them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surveys conduc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KATI) of 23 professional interpreters who have performed distance simultaneous and consecutive interpreting. Their answers to the survey were used in creating a checklist to guarantee professional-level performance during the DI session.

주 제 어: 원격통역, 화상회의 통역,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통역, 과학기술의 발전과 통역, 원격통역 사전 점검사항

Key Words: remote interpreting, distance interpreting, videoconference interpreting, interpreting in the post-COVID era, technology and interpreting, checklist for DI

## 1. 서론

2016년 구글 신경망 번역기(Neural Machine Translator)로 대표되는 기계 번역이 도입된 이후 번역계는 번역 방법과 절차, 번역가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한

바탕의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반면 통역은 기계번역 뿐 아니라 개인의 발음, 발화 특징 등을 반영한 음성인식 기술 발전이 전제되어야 정확한 언어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번역보다 과학기술 발전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여겨졌다(김승희 외, 2014; Fantinuolin, 2019)<sup>1)</sup>. 그러나 통역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영역은 단지 음성인식이나 기계번역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간 통역을 포함한다(Carl et al, 2017).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 사태는 후자의 측면에서 통역계에 급격한 기술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봉쇄, 여행금지 등으로 인해 국제회의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자, 소위 ‘언택트’ 환경에서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대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지는 원격화상회의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원격통역을 연구한 이미경(2019: 67)은 국내 회의 장소는 대부분 도심이고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 국내의 의사소통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는 원격통역보다는 국내와 국외를 연결해주는 통역이 더 빈번하다고 하면서 해외에서 회귀어로서 한국어에 대한 원격통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 COVID-19 환경에서는 국내외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회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규모나 위치와 상관없이 원격화상회의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통역사들이 한 개 이상의 스크린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송받은 영상과 음성에 기반해 원거리에서 수행하는 원격통역(Distance Interpreting DI)”(AIIC, 2019)을 연구한다<sup>2)</sup>. 원활한 원격통역의 기본 조건은 “통역사에게 음성과 화상을 전달하고 통역사의 음성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기술 환경을 만족시키는 것”(Mouzourakis, 2006: 47)이다. 그러나 깨끗한 영상과 음성 등 기술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데다 원격통역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 시각 정보를 스크린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신체적 어려움, 동기부여 문제, 사회적 고립감, 각종 장비 작동의 어려움 등 통역사 개인이 겪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상승시키고 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회의통역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Interpreters AIIC)로 대변되는 전문 통역계는 지금까지 통역 품질과 통역사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전통적인 회의통역을 지지해 왔으며 ICT에 음성과 이미지를 의존하는 원격통역을 정식 통역으로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었다(AIIC 2000/2002, 2018, 2020c).

COVID-19 상황에서 4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조차 “이번에 원격통역(DI) 관련 발표한 권고사항은 COVID-19라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전문통역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없음”(AIIC, 2020c)을 천명했다. 그러나 유례 없는 격변의 시기를 맞아 통역계는 과거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유일 전문 통역사들의 권익단체인 한국통번역사협회(KATI)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KATI는 COVID-19 상황 속에서 ‘원격통역’을 2020년 핵심 이슈로 삼았다. 향후 원격통역에 대한 요청이 늘거나, 통역 방식에 변화가 올 것을 대비하여 회원인 통역사들과 통번역대학원 재학생들이 이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원격통역 관련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원격회의통역과 전통적인 통역의 차이, 인지적 부담감과 제약을 고려한 <KATI 권고 원격통역 사전, 사후 점검사항>을 제작하여 8월 14일 이메일로 안내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KATI 활동의 참여자로서 본 연구자는 원격통역 점검사항을 만들기 위해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작성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통역의 제약은 무엇이며 통역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제 되어야 할 물리적, 기술적, 의사소통 면의 요건들은 무엇인지 분석하려고 한다. 설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격통역 관련 학술자료와 AIIC에서 배포한 원격통역 관련자료를 참고하였다. 설문 대상은 원격통역 경험이 있는 23명의 통역대학원 졸업자 전문통역사들로 설문에서는 그들이 경험한 원격통역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와 대응 방법에 대해 물었다. 본 연구는 설문 결과물을 중심으로 통역사 뿐 아니라 다른 참여 주체들(회의 주최측, 장비업체, 연사 등)이 협력하여 원격통역의 제약을 뛰어 넘고 통역 품질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한다.

## 2.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원격통역의 개념, 간략한 역사와 종류 등에 대해 살펴 본 후 전통적 통역과 다른 원격통역의 특징이 통역사에 미치는 제약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다음 내용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됨과 동시에 실제 통역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문의 기준이 되었다.

## 2.1 원격통역 개념과 중요 기준 정리

원격통역의 정의와 용어는 매우 다양한 기준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AIIC로 대표되는 전문 통역계에서는 광의의 원격통역은 ‘distance interpreting DI’, 협의의 원격통역은 ‘remote interpreting RI’로 구분하고 있다. 즉, 엄밀한(협의의) 의미의 ‘원격통역(remote interpreting)’은 통역사들이 참석자들과 ‘분리된 장소’에 위치하여 ‘화면을 보면서’ 통역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통역사들이 회의장 내부에 주최자들과 ‘함께’ 위치한 채 회의장 전경을 ‘보면서’ 외부에서 접속한 연사들을 통역하는 방식은 ‘원격회의 통역’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통역사가 회의장과 연사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 특히 본인의 짐과 같이 홀로 떨어진 장소에서 통역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와 부담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AIIC는 광의의 원격통역(DI)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일정 회의 참가자와 연결하여 진행되는 모든 통역으로 정의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원격통역을 회의장과 연사를 ‘직접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술 모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볼드체는 연구자의 것)

- ㉠ 원격회의 통역 (Teleconference Interpreting TCI): 통역사가 참여자 일부 혹은 전부를 **직접 볼 수 있는** 환경에서 ICT기술을 통해 원거리의 연사를 통역
- ㉠-1 화상회의 통역 (Videoconference Interpreting VCI): 원거리에 위치한 연사는 화상으로 접속하고, 통역사가 그 외 참여자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볼 수 있는** 환경에서 ICT 기술을 통해 연사를 통역
- ㉠-2 음성회의 통역 (Audioconference Interpreting ACI): 원거리에 위치한 연사는 전혀 볼 수 없으나 통역사가 그 외 참여자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볼 수 있는** 환경에서 ICT 기술을 통해 연사를 통역
- ㉡ 원격통역 (Remote Interpreting RI): 통역사가 참여자를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 ICT 기술을 통해 원거리에 위치한 연사를 통역

㉠-1 화상 원격통역 (Video Remote Interpreting VRI): 통역사가 연사나 참여자를 직접 볼 수 없는 (간접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ICT 기술을 통해 원거리에 위치한 연사를 통역

㉠-2 음성 원격통역 (Audio Remote Interpreting ARI): 통역사가 연사나 참여자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ICT 기술을 통해 원거리에 위치한 연사를 통역(2018: 3)

최문선(2020)은 COVID-19 상황에서 행해지는 통역은 모든 당사자들이 분리되어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게 되며 각자 스크린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송되는 영상과 음성을 보고 들으며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1 ‘화상 원격통역 (video remote interpreting)’ 양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통역사가 화상회의 모드와 같은 각종 통신 기술을 통해 물리적 환경이 아닌 가상 환경에서 중요 회의 참여자들과 연결된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증재하는 통역”(Braun, 2017: 1)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OVID-19 상황에서 위의 방법만이 유일한 통역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통제를 위해 주최측의 중요 참석자, 연사와 통역사, 테크니션 등 소수는 한 자리에 모여 통역을 하는 ㉠-1 ‘화상회의 통역’도 가능한 방식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1과 함께 ㉠-1도 포함하는 광의의 원격통역(DI)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회의장에 대한 ‘직접적인 시야 확보’와 함께 “각각의 주체들이 위치하는 양상”(Braun, 2007: 21)은 원격통역의 개념 정리에 중요한 개념으로 이는 [표1] 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1] 참여자 위치에 따른 원격통역

완전 분리 (완전 비대면)	㉠ 모든 참가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진행
부분 분리 (부분 비대면)	㉡ 주요 참석자들이 개별 장소에 위치하고 통역사들(혹은 일정 테크니션 포함)만 한 장소에서 진행
	㉢ 주요 참석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고 통역사만 외부에 위치
	㉣ 참석자 일부나 전부와 통역사는 한 장소에 위치하고 일부 연사들은 외부에서 접속

통역 종류로 보자면 ㉠, ㉡, ㉣은 통역사가 연사와 분리된다는 면에서 협의의

원격통역, 혹은 화상 원격통역(VRI), ㉞ 는 통역사가 참석자와 동석한다는 점에서 원격회의의 통역(VCI)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㉞ '완전한 비대면 통역'이야말로 통역사들이 부스 파트너, 테크니션 등 어떤 외부의 도움도 즉각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행하는 가장 부담이 많은 통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더욱 다양한 원격통역 방식이 가능하며<sup>3)</sup>, “이 모든 위치 조합에서 순차통역이 가능하고 화상회의를 위한 특수한 음향, 영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통역도 가능하다”(Braun, 2007: 21).

AIIC(2020b) '원격동시통역 기준서'(Reference Guide to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에서는 통역사들이 통역을 위해 부스 등이 마련된 허브에 모여서 테크니션의 지원하에 통역하는 경우를 '원격 허브 통역(remote hub interpreting)'라고 지칭하고 두 파트너만 일정 장소의 부스에 모이는 경우 '단독 부스 허브 통역(interpreting in a single-booth hub)', 모든 통역사가 각각 분리되어 가상공간에서 서로 혹은 다른 참여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가상 부스 통역(virtual booth interpreting)'이라 정의한다. AIIC(2019, 2020b)에서는 동시통역은 기본적으로 팀활동이기 때문에 원격통역 시에도 부스 파트너들이 테크니션과 모두 한자리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 허브에서 통역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기존의 부스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는 허브<sup>4)</sup>” 아말로 인터넷 연결, 음향/방음, 비밀보장, 부스 규격과 물리적 환경, 자료공유 등 모든 면에서 통역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림 1〕 세계의 동시통역 허브

위의 그림은 이민호(2020)가 공유한 통역계의 트렌드 관련 자료로 COVID-19 상황 이전에 이미 유럽 중심으로 통역 허브를 구축해 시공간 제약 없는 통역이 가능한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번역가협회(The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ATA)의 웹사이트(<https://www.ata-chronicle.online>) 아티클 “원격통역 허브와 플랫폼의 차이점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 Hubs or Platforms: What’s the Best Option?)” 에 따르면 ‘허브통역 시스템’과 달리 최근 줌(ZOOM)과 같은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 ㉠ 원격으로 기술 지원 받음
- ㉡ 인터넷 연결, 음향 등 불안정 가능성
- ㉢ 비밀보장 문제
- ㉣ 통역사의 가정에서 통역 환경 제공
- ㉤ 파트너간 턴테이킹 문제
- ㉥ 정전 가능성
- ㉦ 통역사가 장비, 기술 책임
- ㉧ 릴레이 통역의 제약

이로 인해 통역사들이 부스 파트너나 테크니션과 함께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통역하는 ‘허브’ 통역은 원격통역의 성사를 가를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 2.2 원격통역의 역사와 종류

원격통역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통역이 아니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통역 방식이다(Moser-Mercer, 2003, 2005; Mouzourakis, 2006). 원격통역의 개념과 연구동향을 분석한 임세인(2015: 166)은 원격통역의 역사와 연구의 갈래를 크게 회의 통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럽형과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통역 위주로 이루어진 북미, 호주 등 국가들의 통역으로 구분하였다. 일단 유럽을 보면, 유럽연합(EU)과 유럽의회 등 국제기구들이 통역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조합이 필요한 대규모 행사에 많은 통

역사들이 투입되는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원격통역 실무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무주라키스(Mouzourakis, 2006: 46-47)에 의하면 유럽의 원격통역은 출발부터 EU나 UN같은 초국가적 기구들이 회의장 외부에 위치한 통역사들을 국제회의의 통역으로 활용한 데서 유래했다. 이들 기구는 유럽 여러 곳에 분포해 있는 통역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회의장 내에 통역 부스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나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통역사가 회의장 이외의 장소에서 통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통역사들 (특히 소수언어 통역사) 입장에서도 원격통역은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여러 지역의 통역을 한 자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결국 “거리, 보안, 소수언어에 대한 접근성, 비용 등의 이유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활용하는 새로운 통역 방식의 발전을 촉발하게 되었다”(Connell, 2006: 311).

유럽의 상황과는 다르게 매년 많은 수의 이민자가 유입되는 북미와 호주는 사회·문화적 특성상 법정, 의료 등 커뮤니티 통역 위주의 전화통역(Over-the-Phone Interpreting, OPI)이 발달했다(임세인, 2015: 168-169). 전화통역의 역사는 호주 이민국에서 전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Braun, 2015; Connell, 2006). 물론 커뮤니티 통역 상황에서도 전화통역 뿐 아니라 화상통역 형식 통역이 존재한다. 미국의 의료통역사 인증위원회(Certificate Commission for Healthcare Interpreters CCHI 웹사이트<sup>5)</sup>에 의하면 의료 원격통역은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 환경에서 필요한 언어서비스를 원격 콜센터에 위치한 인증된 의료통역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화상회의 기술과 장비, 초고속인터넷 등을 활용해 수행하는 ‘화상 원격통역’(video remote interpreting)과 ‘전화 원격통역’(OPI interpreting)으로 구분된다. 의료통역의 경우 영상통역이건 전화통역이건 원격으로 진행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은 모두 한자리에, 통역사는 특정 ‘콜센터’에 위치하는 원격방식(RI)이 일상적이다. 또한 호주와 북미의 원격통역은 이민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성격으로 인해 유럽에 비해 소규모, 순차통역 위주로 행해졌으며, 화상수화통역이 포함되는 등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도 특징이다(임세인, 2015: 168).

초기에는 공공 서비스 목적이거나 각종 국제회의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이루어졌던 원격회의는 음향과 영상 품질 등 화상회의 기술의 개선, 비용절감 노력, 글로

별화 등 여러 요인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회의 상에서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sup>6)</sup>. 브라운(Braun, 2007)은 회의 주체들 뿐 아니라 통역사들이 모두 원거리에 위치하여 행하는 소규모 화상회의 통역이라는 새로운 업무 환경에 통역사들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연구했는데 향후 이같은 소규모 비즈니스 화상통역 경향이 증가할 것이며 교육과 업무에서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COVID-19 상황이야말로 대규모 국제회의 뿐 아니라 중소규모 회의 통역이 많이 행해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3. 원격통역의 문제

신기술을 통역업무에 접목시키는 주제를 다룬 콘넬(Connell, 2006: 314-315)은 원격통역을 하는 통역사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통근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가정생활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인 업무 한계를 벗어나 일을 하고, 특히 장애를 가진 경우 업무 편의성이 향상되고, 사무실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근무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등의 장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생활의 질이 낮아지고, 업무 조건 협상이 어렵고, 마감이 없는 업무 시간으로 인한 폐해가 늘고, 가정환경에서 진행되는 업무로 집중력 문제가 발생하고, 사무실에서는 겪지 않는 건강이나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는 등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통역사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스크린과 헤드셋을 통해 수동적으로 주어진 정보에 의존해 통역을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 첫째, 다양한 '신체적 고통'으로, 대표적인 문제는 눈의 침침함, 허리와 목통증, 두통 등이 있다. 두 번째, '심리적 정신적 부담감'으로, 통역사는 전통적인 통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현장참여의 느낌 결여, 고립감, 집중도 저하, 피로 증가, 자가 품질 평가 수준 하락, 통역 후의 단기 인지 능력 저하 등을 느낀다(Mouzourakis, 2003). 위의 두 문제는 통역이라는 고도로 복잡한 작업을 행하는 데 쏟아 붓는 정신적 긴장감에다 먼 장소에서 송출되는 파편적인 이미지와 음성을 받아서 조합하고 하나의 현장 이미지로 맞추는 부담감과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다는 무력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Moser-Mercer, 2003).

세 번째는 회의장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감각적 신호를 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통역하는 데서 오는 물리적인 문제이다. 다양한 연구에서 원격통역은 떨어진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통역사들에게 현장감의 부재로 인해 부담을 많이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Connell, 2006; Moser-Mercer, 2003, 2005; Mouzourakis, 2003, 2006). 콘넬(2006)은 전화상의 원격통역은 화자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 큰 제약이라고 하면서, 발화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화상통역 경우에도 표정, 감정, 반응 등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를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심지어 카메라가 앵글을 잘 잡는 경우에도 현장감에서 일어나는 것을 면대면 상황과 같이 다 관찰하고 지각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통역사의 어려움은 지속된다(Olson et al, 1997: 170; Braun, 2007: 22에서 재인용). 이 때문에 통역사는 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의장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부스 안에 앉아서도 연사 뿐 아니라 청중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어야 함을 회의 조직위에 항상 강하게 요구”(Viaggio, 1997: 284) 해왔다. 이와 유사하게 무주카리스(2003)도 통역사에게 ‘현장감(presence)’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역사 본인이 시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남이 제공하는 시각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올라간다고 하였다. 모저-머서(Moser-Mercer, 2003, 2005)도 ‘현장감’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통역사는 다감각통합(multi-sensory integration)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데 원격통역 시에는 이것이 어렵고 이로 인해 통역의 품질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격통역 시에는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화면이나 음향상의 문제, 카메라가 정확한 각도로 연사를 비추지 못하는 문제, 중요한 순간 연사가 움직여 카메라 앵글을 벗어날 때의 문제, 통역사가 기술 운영진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질문을 하기 어려운 문제, 회의장에서는 볼 수 있는 시각 자료가 통역사에게는 보이지 않을 때 다양한 기술적 문제가 일어난다(Connell, 2006: 313-14).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그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는 항상 사전 점검, 준비, 대화, 자료 공유 등을 통해 해결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았듯 “신기술, 새로운 업무 방식은 통역사들에게 저항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Connell, 2006: 313). 이로 인해 AIIC는 2000년 발표한 ‘회의통역의 기술사용 강령’(Code for the

use of new technologies in conference interpretation)에서 다른 회의 주체들은 한 곳에 모여 있고 통역사만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원격으로 통역을 하는 식으로 기술을 오용하는 것은 협회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했으며, 2012년 강령에도 같은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를 통역사의 인식변화에 의해서 문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정신적/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브라운(2007: 37-38)은 '고독감'으로 인한 사기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그는 중소기업 화상회의 중심 실험 연구를 했는데, 모든 중요 당사자들이 각각 다른 위치에 있어 누구도 '홀로 남은 느낌'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는 통역사도 고립감을 느끼지 않음을 발견했고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원격으로 진행되는 통역의 경우 통역사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도 발견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통역사의 사기저하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통역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에 여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이 통역사 교육과 미래의 직업 수행 모델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브라운의 연구(2007)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통역에 제한되는 한계가 있으나 COVID-19 라는 현재 상황에서 통역이 이루어지는 방식과는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 기반해 다섯 가지로 정리한 원격통역의 상황과 문제들을 다음 표에 정리해 보았다. 앞의 신체적, 정서적 상황은 통역사가 겪는 피로감과 부담이라 할 수 있고 뒤의 물리적, 기술적, 의사소통적 상황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표 2] 선행연구 기반 원격통역의 상황

통역사의 상황	문제점
㉠ 신체적 상황	허리, 목통증, 두통
㉡ 정서적 상황	고립감, 인지 장애, 스트레스, 본인 평가 절하
㉢ 물리적 제약 (원격이라는 장소적 제약)	다감각 통합 상황인식 불가, 현장감 결여, 비언어적 신호 결여, 수동적인 정보 처리
㉣ 기술적 제약	기술: 화면과 음향 품질, 카메라 각도, 자료/시각정보 현장 수준으로 확보 등의 어려움
㉤ 의사소통 제약	사전 준비, 회의진행과정 운영진과 소통

### 3. 설문 내용과 결과

#### 3.1. 설문조사 작성

설문조사는 활동기간이 3년 이상이고 100회 이상의 동시통역 경험을 한 통대 출신 전문 통역사 중 실제 COVID-19 이후 원격통역을 여러 차례 경험한 23명의 통역사를 대상으로 했다. 구글 서베이로 먼저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들에게 온라인 링크를 전달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KATI 이사진들이 원격통역에 참여한 전문통역사들을 조사하여 성실하게 응답해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모집이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작성과 응답은 2020년 7월 한 달간 행해졌다. 조사 항목을 만들 때는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에서 도출된 원격통역의 개념과 제약,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주로 구성했다. 다음 [표 3]에 설문의 구성을 정리해 놓았다. 각 번호는 질문의 번호와 같다.

[표 3] 원격통역 설문 구성

주제	질문
통역사가 경험한 원격통역의 중요 환경과 조건	1. 각 당사자들과 통역사가 위치한 곳 2. 전통적인 통역과 비교한 통역의 길이 3. 효율 (3-1 현재 효율, 3-2 적정 효율)
원격통역의 제약과 문제	4-1. 물리적 제약 4-2. 기술적 제약(음향, 영상, 인터넷 연결 등) 4-3. 정신적, 인지적 환경
원격통역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	5-1. 행사 주최측 5-2. 통역사 5-3. 장비업체/테크니션
응급사항과 대처방법	6. 통역시 응급상황에 대해 통역사/운영진의 대처법
원격통역의 장점과 향후 발전 가능성	7.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 8. 원격통역 발전을 위해 KATI에 당부의 말

## 3.2. 통역사의 위치, 통역 길이, 요율

이제 [표 3] 에 나온 질문과 대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장 이론적 배경에서 통역사를 포함한 '주체들이 위치한 곳'이 원격통역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보았다. 이에 따라 <질문 1>은 "선생님이 경험하신 원격회의의 종류를 간단하게 기술 부탁드립니다. (여러 항목 선택 가능)"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표 4] 와 같다.

[표 4] 응답자가 경험한 원격통역 방식

통역사의 위치	비율
1. 완전 비대면: 모든 주체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는 완전한 채택	12(52.2%)
2. 부분 비대면: 주요 주체들은 각각의 장소에, 통역사들만 한 자리에	8(34.8%)
3. 부분 비대면: 해외 연사와 청중은 다른 장소에, 그 외 한국연사나 주최측, 통역사는 한 장소에	<b>17(73.9%)</b>
4. 부분 비대면: 해외 연사만 외부에 있고 청중과 중요 주체들은 한 장소에	11(47.8%)
5. 그 외	1(4.3%)

답변에서 가장 많은 원격통역 형태가 3번인 것을 보면 최근의 플랫폼 환경에서 해외연사와 청중은 원격으로 접속하지만 한국 연사, 주최측 운영진, 통역사 등 소수는 한 곳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번 방식이 인적, 기술적으로 상황 통제에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모든 주체가 분리되는 완전 비대면 통역이 52.5%로 두 번째 많은 방식이었다. 이는 COVID-19 이후 줌(ZOOM) 등을 이용한 화상회의가 많아지면서 통역사들이 부스 파트너를 포함한 모든 회의 참여자들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통역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여준다. 원격통역 시에는 통역사가 최소한 테크니션과 부스 파트너 등과 함께 하면서 전통 통역과 유사한 환경을 가지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임을 강조한 AIIC 입장(2000/2012, 2018)과 국내 발표(이민호 2020; 이주연 2020; 최문선 2020)를 고려할 때 적어도 통역파트너들은 한 곳에 모여서 통역하는 2번 응답이 1번의 완전 비대면 통역보다 더 적었다는 점은 COVID-19 이후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질문 2〉는 통역 길이를 묻는 질문으로 “적정한 원격통역의 길이는 전통적인 통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해 14명(60.9%)의 응답자가 “전통 통역보다 10-20% 짧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같아야 한다”나, “원격통역이 더 길어야 된다”는 경우는 각각 1명에 불과했는데 이 또한 “음질이 보장되는 경우” 라는 단서가 있었다. 원격통역의 길이가 짧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피로도 과다’에 있었으며 이는 통역사 뿐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었다.

〈질문 3〉은 통역사들의 ‘원격통역 효율’을 물었는데, 이 중 3.1은 현재 효율, 3.2는 ‘적절한’ 효율에 대해 물었다. 3.1의 “전통적인 회의와 비교하여 원격회의의 효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에 대해서는 “전통 통역과 같다”가 15명(약 65%)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낮은 경우는 5명(21.7%)이나 있었다.

〔표 5〕 현재의 원격통역 효율

선택 사항	답변
“10~20% 낮다”	1명(4.3%)
“0~10% 낮다”	4명(17.4%)
“전통적인 통역과 같다”	<b>15명(65.2%)</b>
“0~10% 높다”	0명
“10~20% 높다”	3명(13%)

위와 같은 결과는 이론과 설문에서 나온 원격통역에서의 난이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1의 결과와 달리 3.2의 “전통적인 회의와 비교하여 적절한 원격회의의 효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표 6]에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 같이 “**높아야 한다**”가 16명(약 70%)으로 다수였다. 현재 받고 있는 효율보다 통역사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효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적절한 원격통역 효율

선택 사항	답변
“10~20% 낮아도 된다”	0명
“0~10% 낮아도 된다”	1명(4.3%)
“전통적인 통역과 같아야 한다”	5명(21.7%)
“0~10% 높아야 한다”	<b>3명(13%)</b>

“10~20% 높아야 한다”	<b>9명(39.1%)</b>
단답형으로 “1.5배 높아야” 답변	<b>1명(4.3%)</b>
단답형으로 “기술적 제약, 녹음 문제”	<b>3명(13%)</b>
“모르겠다”	1명(4.3%)

단답형 의견을 통해 통역사들은 음향 등 기술적인 제약과 녹음으로 인한 저작권 등을 효율 상승 요인으로 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현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됨”, “주최측과 모두 타협한 적정 수준” 등이 이유였다.

통역 시간과 효율을 묻는 <질문 2>와 <질문 3>의 답변은 <질문 4> 원격통역의 제약 부분의 답변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2번에서 통역시간이 짧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나 3번에서 효율이 더 상승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은 <질문 4>에 물리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한 피로감 수준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원격통역의 제약과 어려움이 많다면 통역사들은 통역 시간을 짧고, 효율이 높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3.3. 원격통역의 제약

다음은 “기존의 현장 통역과 비교하여 원격통역이 낫설거나,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 4>에서 물었다. 질문은 2장의 2.3 원격통역의 문제를 정리한 [표 2]에 기반하여 만들었다. 표에 나타난 통역사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기술적인 준비, 사전에 통역사나 연사에 대한 배려와 충분한 교육, 의사소통, 자료공유 등으로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통역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근거해 4번에서 “기존의 현장 통역과 비교하여 원격통역이 낫설거나,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대주제 하에 <질문 4-1> 통역 업무 수행의 “물리적” 환경, <질문 4-2> 음향, 영상, 인터넷 연결 등 “기술적” 환경, <질문 4-3> 메시지를 듣고 통역을 제공하는 “정신적, 인지적” 환경으로 나누어 단답형 주관식 질문을 했다. 답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연구자가 통합하고, 다음 [표 7]와 같이 종합적으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제약이 가장 크고 물리적 환경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서 같은 주제의 선행연구를 종합한 [표 2]의 분류와 거

의 유사한 답변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표 7] KATI 설문 응답자들이 답한 원격통역의 제약

기술적 환경	음질과 영상 문제(34회)
	인터넷 연결과 플랫폼 안정/불안정(12회)
	장비 조작 어려움(5회)
	온라인 플랫폼상 통역 수행 (턴테이킹, 발음)(9회)
의사소통 환경	사전 준비, 회의 시 의사소통/응급 대응 어려움(11회)
물리적 환경	비언어적 의사소통, 회의장 분위기, 반응 등(14회)
	통역 공간, 시간, 소음 등의 물리적 환경 제약(9회)

### 3.3.1 기술적 문제

기술적 부분에서는 영상과 음질, 인터넷 환경, 기계조작의 어려움 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4-1, 4-2, 4-3 질문 전체에서 음질 및 영상에 대해 언급한 총 횟수가 34번으로 가장 많아 거의 모든 통역사가 음향 문제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적 부담과 피로도가 극심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음질 불안정, 소음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음향이 너무 작거나, 잘 안 들리거나, 하울링 현상이 있거나, 마이크와의 거리에 따라 소리가 멀어지는 현상 등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25회, 래그가 생기거나 영상과 음성 싱크가 맞지 않아 연사, 업체와 통역사의 발화가 겹쳐 들리는 현상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경우가 5회였다. 브라운(2007)의 연구에서도 원격통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화가 지연되거나 겹쳐지는데, 이로 인해 통역사의 이해도와 청취 능력이 저하되어 통역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를 입증하는 결과이다. 해외연사 관련하여 헤드셋 미사용, 마이크 세팅 등으로 일어난 음향문제를 언급한 경우도 3회 있었으며 통역사의 목소리가 안들려 다시 통역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경우도 1회 있었다.

두 번째, '인터넷 환경 불안정'을 언급한 경우는 8회, 플랫폼 불안정은 2회 있었으며 플랫폼마다 다른 환경에 적응의 어려움을 언급한 경우도 2회였다.

세 번째, '기계 조작'의 어려움을 언급한 경우는 5회로 컨퍼런스콜을 할 경우 통역사가 아웃풋 채널(언어채널) 을 조작해야 하는 어려움, 조작방법이 복잡하여 통역에 집중하기 어려움, 통역사와 연사가 기술 조작 미숙시 장애 발생, 통역이외

에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하는 부담, 어플 사용 미숙의 문제 등이 언급됐다. 통역만으로도 집중력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기계 조작이 매우 큰 부담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통역'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문제를 언급한 경우로 '파트너 간의 연결'과 '발음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는 부스 파트너가 함께 있지 않는 경우 순서 교대(턴테이킹)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기계를 통하기 때문에 통역 발화시 더 명료해야한다는 부담감, 특히 자막 인식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발음을 더욱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 발언을 반복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담감을 말한 경우가 있었다. 순차의 경우 연사와 호흡 맞추기 어렵고 통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발화를 하는 경우 의사전달의 어려움, 동시의 경우 듣고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소요되어 도착어로 발화하기 힘들었다는 등 문제가 있었다. 화면 없이 듣기만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인지적인 부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 3.3.2 의사소통의 문제

다음으로 주최측, 장비업체, 연사 등과 의사소통은 첫째, 사전 준비와 둘째, 회의 중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우선 사전준비의 경우, 일반 통역처럼 연사나 주최측을 미리 만나서 정보를 얻고 분위기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자료 공유와 사전준비 부족을 언급한 경우가 5회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준비나 테스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테스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을 청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있었다. 둘째, 회의 진행시 응급 상황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으로 응대가 안되고 음향/영상 담당 테크니션이 부재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5회로 많았다. 문제가 생길 때 청중들이 통역사 탓을 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2장의 국내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기술적, 의사소통적 문제는 사전에 통제되지 않으면 통역사의 인지적, 신체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동시에 시간소요에 대한 적절한 물질적 보상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3.3.3 물리적 환경의 문제

다음으로 원격통역의 물리적 환경은 첫째, 통역사가 회의장 현장에 있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장감 부재’ 문제와 둘째, 부스 등 통역 공간과 소음, 시간 등 전통적인 통역과 유사한 물리적 조건으로 [표 8] 과 같이 구분할 수 있었다. (\*볼드체는 필자의 것이다)

[표 8] 응답자들이 답한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

물리적 환경	응답
현장감 부재의 문제	<b>소통</b> 제한적(비언어적 요소 도움 불가), 오프라인대비 <b>표정 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부분</b> 확인 어려움,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지 않기에 <b>라포 형성/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b> 이 어려움, 연사가 현장에 없어 <b>교감</b> 이 어렵고 더 부담, <b>연사와 청중간의 반응</b> 이나 <b>분위기 확인</b> 등이 어려움, 청중 및 연사와 <b>직간접적인 인터랙션</b> 이 전혀 없어서 어려움, <b>현장에서 캐치 할 수 있는 다른 비언어적 상황</b> 들을 잘 알 수 없음, 강사의 환경에 대해 통역사가 통제 불가능
플랫폼의 한계	PPT 사용시 <b>연사 얼굴이 너무 작게 보임(혹은 안 보임)</b> , 음성정보에만 의존하여 상황과 내용을 파악하니 피로도가 올라가고 이해도 하락, 줌(ZOOM) 경우 발표 자료를 띄우면 <b>연사가 안 보여서 연사와 교감 어려움</b>

우선 통역사에게 ‘현장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2장의 많은 선행연구(Connell 2006; Moser-Mercer 2003, 2005; Mouzourakis 2003, 2006)에서 강조되었는데,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통역은 소통행위이고 연사를 직접 보고 청중과 연사의 관계, 청중의 반응, 현장의 분위기를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통역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란 것을 고려할 때 통역사들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라포”, “교감”, “인터랙션”, “분위기 확인” 등이 어렵다고 응답했다는 것은 ‘현장감 부족’이 원격통역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통역 수행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의 해외 연구들에서 확인 했듯이 기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철저한 기술적 준비를 해도 현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행해진다는 물리적 한계를 일시에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란 점에서 이 부분이 모든 원격 의사소통의 한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리적 제약에서 두 번째로 지적된 문제는 통역 공간과 시간 등 물리적 공간으

로 부스와 통역 실행을 보장하는 장비 등 '통제된'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통역사들은 그동안 '부스'라는 물리적 환경 내에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부스가 없는 경우 "산만해서 통역을 수행하기 힘들다",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 별도 공간이 필수적이다", "뚫린 공간에서는 집중이 잘 안된다", "간이 회의실의 방음상태가 열악하고 소리가 울려 힘들다" 등 답변이 있었다. 또한 "모두가 떨어져 있는 경우 적합한 장소 섭외가 어려웠다" 는 응답도 있어 통역사들이 직접 통역실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택에서 하는 경우, "마이크에 들어가는 외부 소음 관리의 어려움", "일부이기는 하지만 개인공간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신경 쓰임", "벨소리나 옆 집 소음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가능" 등 음향 수준, 소음과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통역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계속 지적되었듯이 원격통역에서 통역사와 테크니션들이 모여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통역 허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 정리해보면 물리적 제약 중 '현장감'은 온라인의 한계로 극복이 쉽지 않지만 '통제된 공간' 마련의 문제는 허브와 같이 파트너와 테크니션이 모인 공간 설치로 해결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3.4. 사전 준비사항과 응급시 대처방법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통역 상황과 비교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전 준비"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통역사들은 화상회의 행사 주최측 (연사 포함), 통역사, 테크니션/장비업체 등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에서는 주최측과 장비업체를 분리하여 질문 했으나 응답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최측과 장비업체에 요구하는 사항이 중복되고 많은 장비업체들이 영세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파악하여 분석 시에는 이들을 통합하였다.

통역사들이 기본적으로 주최측(장비업체 포함)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준비사항은 다음 [표 9] 와 같다. 1, 2, 3은 장비 및 물리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4, 5, 6, 7은 회의 시작 전과 회의 상황에서 미팅과 교육, 자료공유, 효과적인 운영과 조율의 필요성, 8은 통역사 자택통역 시 응급상황 사전 차단에 관해 말하고 있다.

[표 9] 주최측이 해야 할 준비와 대처방법

주최측 준비	응답
RI의 물리적 조건 충족	1. 양호한 장비 (내장 마이크 한계 있으므로 해외 연사 필히 스탠드 마이크 사용 등 체크, 연사 플랫폼이 구동되는 PC 및 유선 인터넷 연결, 연사 헤드셋 사용) 2. 인터넷 연결 환경 3. 동시통역: 통역사는 회의 현장에 위치할 수 있도록 부스 마련
사전 미팅, 리허설, 교육, 회의시 조율	4. 사전 미팅과 교육 (참석자들 회의 플랫폼에 잘 연결되는지 화면이 셋업 되었는지 확인, 마이크 시스템 확인, 리허설, 연사에게 줌 등 화상회의 플랫폼 기능 숙지시키고 호스트가 비디오/오디오 효과적 관리, 발화자 내용 모니터링 스태프 고용) 5. 사전에 녹화, 녹음 관련 별도 협의 필요 6. 자료의 사전 공유 7. 연사의 말이 빨라지는 경우 전달자, 회의 진행 조율자 8. 회의시 돌발 상황 (네트워크, 컨퍼런스콜 끊김 등) 대처 방법 마련 9. 회의 전 과정 통제하는 테크니션 지원
자택 통역 지원	10. 통역사 자택 통역의 경우 소음 등 사전 차단
물리적 환경	11. 노트북 2개를 놓기에 협소한 부스 환경 12. 투명 파티션으로 인해 파트너와 협력 어려움 13. 회의장에 제공되는 컴퓨터 화면을 통역사만 못 보는 경우 등 자료 공유 문제

단지 위와 같이 주최측이 예행연습과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에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거나, 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최측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이어 통역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준비 사항은 무엇인지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표 10] 을 보면, 우선 약 26%(6명)에 달하는 통역사들이 원격통역 시대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통역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번, 3번, 4번과 같이 더 치열한 통역을 준비하고, 주최측에 요청해 자료를 미리 받아 내용 확인하며, 기술적 이해를 위한 공부 등을 통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 5번, 6번, 7번, 8번과 같이 네트워크나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다양한 장비를 구입하여 물리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통역사들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여분의 PC, 태블릿, 핀마이크 등 다양한 장비를 구입하고 톨도 다양하게 다운받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과 소음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통역사와 전통방식 통역 준비 수준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임하는 경우 등 개인 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나 그대로 있는 경우 등을 보면 향후 원격통역 상황에 통역사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한 협회나 교육제도의 안내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문제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이를 통역사가 부담할 것인지 주최측이 제공할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10] 통역사가 해야 할 준비와 대처방법

준비	응답
기존 방법 그대로	1. 평소와 같다 4명, 잘 모르겠다 2명
통역 준비	2. 듣기의 중요성 증가, 사전 공부의 중요성 증가 3. 자료 미리 받음
기술적 지원 요청	4. 주최측에게 준비 요청 (예: 기술적인 세팅, 부스, 통역사들과 주최측의 위치 및 연락방법 등등 체크하여 최선의 환경에서 통역 보장)
자택 내 기술적 준비	5. 주변 소음 차단 6. 장비 구입 (PC 준비, 핀 마이크 준비, 노트북 연결이 어려운 경우 대비해 태블릿이나, 핸드폰 등 다양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 7. 기술적 배경, 툴 사용 이해 (사전에 줌이나 라인, 구글 등 어떤 툴을 사용할지 미리 확인하여 다운로드를 하되,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 그 외의 앱도 바로 접속 할 수 있게 준비해줌) 8. 네트워크 상황 안정화 확인

〈질문 5〉에서 논의한 준비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질문 6〉에서 통역사들에게 “원격통역을 하면서 음향, 연결, 영상, 통역 환경, 녹화, 운영, 사전 동의나 계약 등 어떤 문제라도 당황스러웠던 일화를 몇 가지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다. 결과 가장 빈번한 응급 사태는 음향이나 인터넷 연결 등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문제 상황에서 “중간에서 핸들링 해주는 주체가 없는 것”을 큰 문제로 보았다.

통역사 A “완전 재택통역을 한 번 했는데 **상대 통역사와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터넷 연결이 끊겨서 통역이 잠깐 나가지 못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빨리 다시 연결해서 줌 세션에 들어가서 호스트에게 통역사

지정을 요청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했으나, 통역사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뒤를 이어 통역사들은 “무단 녹음”과 “요율”, “장비구입 주체” 등 통역 사전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통역사들에게 녹음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통역사들은 “사전 동의 없이 녹화했는데 통역이 아닌 연사의 발언을 녹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연사의 말과) 통역을 분리할 방법이 없음”, “통역을 녹음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도 100% 요율 적용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요율 내고를 원함” 등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 중에는 “에이전시에서 금지, 배수 청구, 반액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 해결”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녹음, 녹화 문제를 반드시 사전 협의사항으로 넣을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요율 인하를 요구해서 장시간 설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장비를 계속 사라고 요청했다. 헤드 폰 컴퓨터 등등... 사양 맞지 않으면 당신 책임이라고해 결국 사다”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 요율이나 장비 구입 등도 사전 협의 사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임을 볼 수 있었다.

### 3.5. 원격통역의 발전가능성

#### 3.5.1 원격통역에 대한 통역사들의 의견

〈질문 7〉은 “원격통역이 전통적인 통역에 비해 장점이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장점이나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로 발전가능성을 물었는데 원격통역의 가능성에 대한 통역사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긍정적인 것이었다.

〈표 11〉 통역사들이 보는 원격통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 보는 의견	한계 있다고 보는 의견
*지리적 한계 없음 *시간 제약 없음 *연결 안정성, 음질, 사용자 조작 용이성, 대규모 인원 동시접속 등 문제가 해결되면	*심리적으로도 깊이 있는 대화로 진전되기 힘든 점 *통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고객만 우선하는 차선책

<p>회의 증가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율성, 모이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li> <li>*집안 환경에서 편하게 통역</li> <li>*복장이 편함</li> <li>*출장 필요 없음</li> <li>*경험 쌓은 주최측이 계속 원격통역 원할 것</li> <li>*현 시점에서 유일한 대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막 등 틀이 나오지만 면대면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차선택</li> <li>*화상회의 자체가 한국어로 해도 한계</li> <li>*기계에 대한 신뢰 낮고 기밀누설 문제</li> <li>*소리 겹침, 딜레이 등 문제</li> </ul>
---	---

현재는 음향, 연결, 플랫폼, 조작 용이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향후 주최측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통역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으며 의외로 자택 통역도 시간활용이나 편리함이 크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 두 의견은 두 통역사가 원격통역의 장점에 대해 묘사한 것이다. (\*볼드체는 필자의 것)

통역사 A: “집에서 진행한 원격순차통역의 경우, 무엇보다 **집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화면이 큰 데스크톱 컴퓨터로 자료를 보면서** 통역을 할 수 있어 넓고 편했다. 그리고 **옷차림의 경우도 상반신만 정장을 입고,** 하반신은 반바지나 편한 바지를 입고 진행할 수 있어 편안함과 쾌적함에 있어서는 최고의 조건이었다. 그리고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육체적인 피로감이 없는 점도 큰 장점**이고, **점심도 편하게 집에서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하기도 좋았다.**”

통역사 B: “통역의 종류에 따라 원격통역이 더 효율적인 부분도 많았다. 참석자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세미나나 학술회의의 경우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통역이 더 적합하겠지만,** 기업 매칭회나, 투자설명회, 스타트업의 IR, 피칭 등과 같은 소규모 전문 회의의 경우, **원격 순차통역도 매우 적합하다고 본다. 네트워크 환경이 안정화되고 모든 주체들이 원격 회의에 익숙해지면 회의 빈도는 늘어날 수 있을듯 합니다.**”

원격통역이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측은 이 방식이 차선택일 뿐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없으며 비밀 보장이 안되는 등 기술적, 물리적 한계를 지적했다. 다음은 원격통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 통역사의 의견이다. 기술적인 문제, 기밀누설 문제, 간접 대화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COVID-19 이후 대면통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통역사들이 말하는 계약을 거의 모두 들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 기술 발전, 혹은 통역 허브 구축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어 향후 이 분야 기술 발전 속도가 많은 부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역사 C: “처음에는 원격회의와 원격통역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해보니 클라이언트들도 **소리 전달의 딜레이, 오디오 겹침 등의 불편함**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서 말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환경에서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밀누설의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 (중략) 아직은 **기계에 대한 신뢰가 없고, 인터넷 환경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회의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큼니다. 또한 **직접 만나 회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집중력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 확신한 듯한 분위기가 저의 클라이언트분들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종식되면 한 동안은 **대면통역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 3.5.2 KATI 협회에 바라는 사항

통역사들은 원격통역 상황에서 워낙 많은 부담감, 피로를 느끼며 작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주최측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데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출장을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요율을 저렴하게 하려거나, 무단 녹화를 하고도 적절한 보상이 없는 주최측의 관행에 대해서도 강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모르는 다른 통역사들을 위해서도 원격통역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한계, 기술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요율’, ‘녹음’, ‘책임 소재’, ‘원격통역의 어려움’, ‘통역 가이드라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요율과 원격통역의 어려움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다. 계약이 많기 때문에 요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통역사들의 의견은 다음 [표 12]과 같았다.

[표 12] 원격통역 관련 KATI에 바라는 사항

요점	중요 주장
요율	대중의 인식은 온라인회의는 물리적 이동 없어 더 저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율을 낮출 수 있다는 주최측과 일부 통역사들에게 명확한 태도

	취하고 기준 제시
녹음, 녹화	무단 녹음과 녹화가 발생할 시 법적 분쟁 해결
책임 소재	음향 사고나 기타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처가 어려운 점 등 위해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할 필요
원격 통역의 어려움	주최측 뿐 아니라 다른 통역사들에게 원격통역의 부담과 어려움, 한계를 적극 홍보
통역 가이드라인	어플 종류, 사용법, 통역사례 등 RI 가이드라인을 통역사들에게 제시, 사용자 및 주최측의 교육을 위해 협회사이트에 관련 게시물을 게시

빈도수로 가장 많았던 것은 요율 관련한 사항과 원격통역 관련 준비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통역사나 주최측과 공유해야 할 필요성 등이었다. 본 연구의 <질문 3>에서 통역사들이 원격통역의 요율이 적어도 20%까지는 전통 통역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국내 유일의 전문 통번역사 협회인 KATI에 요율 관련 면을 업계와 통역사들에게 확실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제시했듯이 음향, 기계조작, 현장감 결여 등에서 오는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 피로, 부담감에서 잘 볼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면이 워낙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다른 통역사들이 이에 대해 잘 알고 통역에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볼 수도 있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AIIC(2020a)를 기초로 하여 <KATI 권고 원격통역 사전, 사후 점검사항>에 반영되었다.

#### 4.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원격통역 수행 전후 점검사항을 제작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외 선행연구와 AIIC에서 발표한 원격통역 준비를 위한 자료와 입장문, KATI 세미나 발표문 등을 중심으로 원격통역 수행시 제약들을 추출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결과는 설문 대상인 국내 통역사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원격통역이 그동안 발표된 국내외 연구 결과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즉, 현 시점에서 원격통역의 가장 큰 문제는 음향과 인터넷 연결, 기계조작 등 기술적인 문제였다.

이는 원격통역이 아직은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결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첫째, 4차산업혁명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원격통역 지원 기술은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역사, 연사, 운영진 등 중요 주체들이 장비 활용 능력이 향상되고, 필수 장비 구입과 사용이 정착되고, 주최측이 플랫폼 상에서 다자간 대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향후 원격통역의 제약이 많이 사라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철저한 '사전 준비'와 '테스트',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기술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통역사들의 업체 대상 요구 사항 중 많은 부분이 기술적 준비, 리허설, 통역 전체 과정에 테크니션 배치 등으로 나타났기에 이를 해결하면 통역사가 통역 이외의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 많은 부분 기술적 제약이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통역 파트너들이 반드시 함께 위치하고 적어도 한 명의 테크니션이 이들을 보조하는 통역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 많은 통역사들이 응답에서 일차적으로는 파트너들이 함께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역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역 허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AIIC, 미국번역사협회(ATA) 등 해외 기관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KATI 세미나와 이후 한국번역학회 가을 학술대회 등에서 이민호(2020), 이주연(2020), 최문선(2020) 등 국내 교수진과 업체 관계자들이 언급했듯이 이는 세계적으로도 원격통역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허브의 개수나 위치 등이 통역사들이 편안하게 사용될 수준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기술적인 문제는 장비 발전, 참여자들의 기술적 숙달과 적응, 의사소통과 준비 과정 확립, 허브 구축 등을 통해 많은 부분 개선 가능하겠지만 통역사들이 밝힌 국내 상황은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원격통역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제약과 함께 연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도 통역사들이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공감, 라포, 비언어적 신호를 읽고 알아차리는 현장감 부재였다. 이는 통역 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의사소통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뛰어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COVID-19와도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제약을 견딜 수밖에 없으나 이 상황이 종결되면 한 통역사가 설문에서 답했듯이, "네트워킹이 중요한 세미나나 학술회의의 경우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통역을, 기업 매칭회나, 투자설명회, 스타

트업의 IR, 피칭 등과 같은 소규모 전문 회의의 경우 원격통역을 하는” 등 상황에 맞게 적절한 통역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해결법이 될 것이다. 즉, 현장감이 중요한 회의는 결국 전통 통역으로, 소규모 지식전달 위주 화상회의는 원격통역으로 이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원격통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기 단계임으로 협회와 업계, 교육계 등이 제도권이 연합하여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공동 대응전략을 펼쳐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원격통역에 적절한 통역시간과 요율을 정착 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녹음, 녹화’ 등 문제이다. 설문 결과 통역사의 허락 없이 녹화하고 이를 재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통역 결과물이 정제되어 언어 데이터로 재생산 되는 경우 지적재산권 문제와 함께 이것이 요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다. 원격통역 시에는 다양한 기술적, 의사소통 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음향, 이미지 등이 중단되거나, 방음문제로 정보가 누설되거나, 인터넷상 의사소통의 성격상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발생과 통역 시간, 요율, 녹화 허락 등에 대해 통역 전 계약서에 모든 것을 명기하고 양측이 이에 동의한 후 통역을 하는 환경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원격통역은 통역사들에게 매우 생소한 작업환경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술적 지식, 장비 운영, 새로운 상황에 임하는 태도, 물리적인 상황 준비 등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역사들이 설문에서도 협회에 바라고 있듯이 협회와 교육기관의 연구와 토론, 안내 등이 절실한 시간이다. 특히 교육기관들은 텀데이킹, 기계 조작, 파트너간 협력 등 문제와 발음의 명료성 등에 있어서는 통역대학원 차원의 심도 깊은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진실희(2020) 발표와 같이 중앙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2020년 원격통역에 적합한 통역 시설을 마련하고 이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소득 중 하나는 원격통역의 제약과 극복방법을 알아보면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설문조사와 배경 이론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원격통역은 시간과 비용 감소, 편리성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내에 앞

아서 세계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통역사들에게 오히려 많은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원격통역 분야를 AIIC 자료와 많은 학술 자료에 기초해 논하고 있다는 학술적인 의미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협회 회원들에게 원격통역 사전 점검사항을 만들었다는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에 근거해 원격통역의 문제와 제약, 각 주체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다는 것도 의의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은 동시에 한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가 원격통역 사전 점검사항에 사용하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이었기 때문에 조사지 작성을 위한 더 치밀한 준비를 하지 못했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대상 통역사들 프로필과 원격통역 경험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사전 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결과도 계량적으로 측정되지 못하고 통역사들의 기초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원격통역의 중요 제약과 꼭 필요한 사항들을 밝히는 수준이 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원격통역을 경험하는 통역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를 더 발전시켜 원격통역을 경험한 통역사 개인들에 대한 심층 면담연구와 통역사들 자격과 경험에 대한 정확한 프로필에 기초한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원격통역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승희, 박준, 김상훈 (2014). 자동통역기술, 서비스 및 기업 동향.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29-4, 39-48.
- 이미경 (2019). 원격통역 활성화 요건 및 통역교육의 함의. 통번역교육연구. 17-2, 63-84.
- 이민호 (2020). 원격통역을 위한 동시통역 시스템 및 화상회의 시스템. 한국통번역사협회 KATI 9월 12일 세미나 발표자료.
- 이주연 (2020). 온라인통역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원격통역의 현재와 미래. 한국통번역사협회 KATI 5월 30일 세미나 발표자료.
- 임세인 (2015). 원격통역의 개념과 연구 동향 고찰. 통역과 번역. 17-3, 163-189.
- 진실희 (2020). 전문대학원 원격통역 교육 사례. 한국통번역사협회 KATI 9월 12일 세미나 발표자료.
- 최문선 (2020). 해외 원격통역 환경 구축 선진사례 분석. 한국번역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자료.
- AIIC (2000/2012). Guidelines for the use of new technologies in conference interpreting. *Communicate!* March-April 2000. Retrieved September 9, 2020, from [http://www.aiic.net/ViewPage.cfm?page\\_id=120](http://www.aiic.net/ViewPage.cfm?page_id=120).
- AIIC (2018). AIIC Position on Distance Interpreting. Retrieved September 22, 2020, from [https://aiic.org/document/4837/AIIC\\_position\\_on\\_TFDI\\_05.03.18.pdf](https://aiic.org/document/4837/AIIC_position_on_TFDI_05.03.18.pdf)
- AIIC (2019). Guidelines for Distance Interpreting. Retrieved July 24, 2020, from <https://aiic.ch/wp-content/uploads/2020/04/aiic-guidelines-for-distance-interpreting-version-10.pdf>
- AIIC (2020a). Interpreter Checklist Performing Remote Interpreting Assignments from Home in extremi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trieved May 30, 2020, from <https://aiic.ch/>

- wp-content/uploads/2020/05/aiic-interpretor-checklist.pdf
- AIIC (2020b). Reference Guide to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 Retrieved September 22, 2020, from <https://aiic.ch/wp-content/uploads/2020/05/aiic-ch-reference-guide-to-rsi.pdf>
- AIIC (2020c). Position Paper. Retrieved July 24, 2020, from <https://aiic.ch/wp-content/uploads/2020/04/aiic-un-sector-position-paper-15042020.pdf>
- Braun, S. (2006). Multimedia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ir impact on interpreting. Retrieved September 4, 2020, from [https://www.euroconferences.info/proceedings/2006\\_Proceedings/2006\\_Braun\\_Sabine.pdf](https://www.euroconferences.info/proceedings/2006_Proceedings/2006_Braun_Sabine.pdf)
- Braun, S. (2007). Interpreting in small-group bilingual videoconferences: Challenges and adaptation processes. *Interpreting*, 9-1, 21-46.
- Braun, S. & Taylor, J. L. (2011). Video-mediated interpreting: an overview of current practice and research. In Braun, S. & Taylor, J. L. (Eds.), *Videoconference and remote interpreting in criminal proceedings*. Guildford: University of Surrey, 27-57.
- Braun, S. (2015). Remote interpreting. In Mikkelsen, H. & Jourdenais, R. (Eds.), *Routledge Handbook of Interpreting*. London/New York: Routledge. Retrieved September 4, 2020, from [https://pdfs.semanticscholar.org/ed01/b4a8aa785e7b4cca9ba3ad4c69dc5dada1a5.pdf?\\_ga=2.151390142.646637620.1599230429-1733605314.1599230429](https://pdfs.semanticscholar.org/ed01/b4a8aa785e7b4cca9ba3ad4c69dc5dada1a5.pdf?_ga=2.151390142.646637620.1599230429-1733605314.1599230429)
- Braun, S. (2017). What a micro-analytical investigation of additions and expansions in remote interpreting can tell us about interpreters' participation in a shared virtual space. *Journal of Pragmatics*, 107, 165-177.

- Carl, M., & Braun, S. (2017). Translation, interpreting and new technologies.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nd Linguistics*, 374-390.
- Connell, T. (2006).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to remote interpreting. *Linguistica Antverpiensia, New Series - Themes in Translation Studies* 5, 311-324. Retrieved August 15, 2020, from <https://lans-tts.ua.ac.be/index.php/LANS-TTS/article/viewFile/166/103>
- Fantinuoli, C. (2019). *Interpreting and technology*. Language Science Press. Retrieved September 22, 2020, from <https://langsci-press.org/catalog/book/209>
- Moser-Mercer, B. (2003). Remote Interpreting: Assessment of human factors and performance parameters. Retrieved September 22, 2020 from <https://ecfsapi.fcc.gov/file/7521826425.pdf>
- Moser-Mercer, B. (2005). Remote interpreting: issues of multi-sensory integration in a multilingual task. *Meta: journal des traducteurs*, 50-2, 727-738.
- Mouzourakis, P. (2003). That feeling of being there: vision and presence in remote interpreting. *The AIIC Webzine*, 23. Takis Mouzourakis.
- Mouzourakis, P. (2006). Remote interpreting: a technical perspective on recent experiments. *Interpreting*, 8(1), 45-66.
- Viaggio, S. (1997). Kinesics and the Simultaneous Interpreter: The Advantages of Listening with One's Eyes and Speaking with One's Body. In Poyatos, F. (Ed.),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ranslation*. 283-293. Amsterdam, Netherlands; Philadelphia, P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김순미

숙명여자대학교 영문학부 조교수

전공언어: 영어

관심분야: 기계번역, 로컬리제이션 번역, 원격통역, 커뮤니티 통역, 번역과 사회

E-mail: smikim@sookmyung.ac.kr

- 1) [https://ettrends.etri.re.kr/ettrends/148/0905001964/29-4\\_39-48.pdf](https://ettrends.etri.re.kr/ettrends/148/0905001964/29-4_39-48.pdf) '자동통역기술, 서비스 및 기업 동향' 자동통역은 어떤 언어 A로 된 사람의 발화를 음성인식, 자동번역 등의 과정을 거쳐서 다른 언어 B로 변환하고, 이를 자막으로 출력하거나 혹은 음성 합성 후 스피커를 통해 들려주는 과정 및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음성인식의 정확도, 문장 경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다양한 대화체의 음향/언어 모델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음성합성 작업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 2) 영어에서는 'distance interpreting'과 'remote interpreting'으로 광의의 원격통역과 협의의 원격통역을 구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광의', '협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둘을 구분한다.
- 3) '원격통역의 종류' 이주연(2020)
  - a. Zoom 이용 순차통역
  - b. Zoom 이용 동시통역
  - c. 부스 동시통역: 연사들은 Webex, Zoom 이용 원격접속
  - d. Cisco 등 전통적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 순차통역
  - e. 기업 자체 플랫폼 이용 동시통역: 영한은 동시, 한영은 순차
  - f. 컴퓨터 두 대로 채널 분리 후 동시통역
  - g. 채팅창 이용한 Q&A 등
- 4) 미국번역사협회(The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ATA) "Remote Simultaneous Interpreting Hubs or Platforms: What's the Best Option?" <https://www.ata-chronicle.online/featured/remote-simultaneous-interpreting-hubs-or-platforms-whats-the-best-option/>
- 5) CCHI Remote Interpreting Resources <https://cchicertification.org/ri-resources/>
- 6) <https://it.donga.com/27705/> 새롭지 않은 '화상회의'를 새롭게 봐야 하는 이유